

농어촌공사 의령지사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김영찬기자 | 승인 2023.03.29 17:27 | 10면

의령과 인연 맺어온 의령지사 임직원 자발적 응원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임직원 18명이 의령군의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응원하고자 합심하여 기부금을 전달했다. /의령군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지사장 이경) 임직원 18명이 지난 28일 오전 의령군의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응원하고자 합심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기부는 "고향이나 직장을 통해 의령과 인연을 맺어온 의령지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령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이경 지사장은 "많은 향우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령을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령을 위해 우리 의령지사 직원들도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의령지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지난 2월에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및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찬기자